

북해도에서 온 러브레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역대상 20장 9절)

김주환 · 홍성아 선교사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잠잠히 귀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알고 계시듯이 이곳 일본은 PCR검사를 받는 것도 어렵고, 증상이 있어 구급차에 실려가도 받아주는 병원이 적어 몇 시간씩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검사기관과 코로나환자를 받을 병원을 늘려가고는 있으나, 집에서 속수무책으로 죽어져 가는 사람들의 소식도 적지않게 뉴스를 통해 들려옵니다. 마스크나 알콜 소독제를 구하기가 힘들며, 대부분 면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사용하는 고무줄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국가가 정한 긴급사태선언은 5월 6일까지이지만, 코로나확진이 계속되고 있어, 긴급사태선언을 한 달 연장하고, 개학은 두 달 후로 미루는 것도 논의중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한 결과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비상사태에, 이토록 대응이 늦어진 적이 있었나 할 만큼 모든 것이 더디고 무능해보입니다. 게다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할 시련의 때에, 한일양국의 관계도 너무 좋지 않아서, 더욱 가슴아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사랑이 식어져가는 말세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전해져,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낮추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일 양국이 되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예배상황

저희 레인보우교회의 경우, 3월 첫 주에 처음으로 인터넷 예배를 실시하였습니다. 북해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지사가 긴급사태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예배를 처음으로 드렸던 3월 1일, 저희 가족과 몇 명의 성도만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생중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예배에 한 대학생 남자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가을 교회 행사 때 한 번 교회에 온 적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스스로 교회 예배에 온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경험하자, 왠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며 쓸쓸했던 교회에,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어린이 예배와 주일식사, 주중의 모임들은 중지가 되었고, 주일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간격을 두고 앉아서 인터넷 예배와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평소처럼 다들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가 끝나면 금방 집에 돌아가지 않고 짧은 시간이지만, 선 채로 교제를 나누며 오랫동안 만난 즐거움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4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태가 심각해졌고, 4월19일 예배부터는 완전 인터넷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북해도도 마치 기록경신처럼, 최다 감염자 발생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제목

이런 상황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15주년 기념예배 후 다함께



유베츠메구미교회 건축예정지에서의 기도

1.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지기 직전에, 교회설립 15주년 기념행사가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흥성아 선교사의 모교회인 양평읍교회의 담임목사님 내외분과 장로님 두 가정이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개척된 유베츠메구미교회 건축예정지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2. 우리교회 성도 가정에 3월에 건강한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도 새 생명이 건강하게 탄생하여 교회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 교회에 면마스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구도자인 한 부인이 두 번에 걸쳐 대량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주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도 예쁜 면 마스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학생들이나 마스크가 없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덕택에, 교회 게시판에도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라고 안내하며, 지역을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4. 성경공부도 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인이나 스마트폰이 서툰 성도님들도 열심히 배워서 참여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5. 주일학교 어린이 라인방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구도자 가정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어서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6. 인터넷 예배로 완전 전환하기 바로 전 주일인 4월 12일까지 성찬식과 세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교회에 오기 시작한 한국인 유학생 청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3시간 떨어진 곳으로 취직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세례교육을 끝내고



부활절 예배 때 세례를 받은 정승기 형제



지역의

4월 12일 부활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주 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무한정 연기될 뻔 했던 세례식이 거행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7. 교회 이곳 저곳을 청소하며 수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8. 전화나 우편을 통해서, 현관앞 심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성도들과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분교다이레인보우교회 설립 15주년 행사를 무사히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지역을 위한 구원의 큰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쓰임받도록
2.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위기의 때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4.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시카와 미노루 씨의 위암(임파선으로 전이됨)이 치유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5. 개척교회인 유베츠메구미교회가 좋은 건축설계회사와 연결되어 설계와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6. 이시구로 마사루 신학생의 학업을 축복해주시고, 부인과 세 명의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모든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도록
7. 김주환-홍성아 선교사와 아들 유이(초등학교 3학년)가 늘 성령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한국에 계시는 양가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위에 주님의 공훈과 돌보심이 늘 함께 하도록
8. 모든 후원자들과 후원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도록

2020년 5월 2일
일본 북해도 에베츠시에서
김주환-홍성아 드림

(현지주소) 〒069-0833 北海道江別市文京台 14-26 文京台レインボー教会
(교회) 81-11-386-7750 (휴대폰) 81-80-6074-7700 (LG인터넷전화) 070-7579-0129
(이메일) givinglove77@gmail.com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3-764 KPM김주환

첫 입금 시에는 KPM 세계선교위원회(042-622-7061~3)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